김해축협, 23~26일 롯데아울렛 김해점서한우구이 판매장 설치·각종 공연 등 제공장윤정·은가은 무대에 화려한 불꽃 쇼도  
  
  
  
  
  
  
  
김해축협 한우 브랜드 ‘천하1품’. 김해축협 제공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축제가 경남 김해에서 열린다. 행사장에는 현장에서 구매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이 마련되고 유명 가수 공연과 가요제, 불꽃 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방문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전망이다.김해축협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 주차장에서 ‘제1회 김해한우축제’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김해축협은 자체 한우 브랜드인 ‘천하1품’을 시중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2002년 출시된 천하1품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소비자시민모임이 선정한 우수축산물 인증 브랜드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우수혈통 선발과 엄격한 사양관리, HACCP 인증, 콜드체인시스템 운영이 천하1품이 한결같은 맛과 깊은 풍미를 내는 이유로 꼽힌다.축제 기간 행사장에는 당일 구매한 고기를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한우구이 판매장이 1000석 규모로 설치된다. 시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대 공연과 프로그램들도 이어진다.첫날인 23일에는 한우챔피언 퀴즈대회와 풍물패·통기타·지역예술인 공연, 전국 가요제 등이 무대를 꾸민다. 야간에는 화려한 멀티미디어 불꽃 쇼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다음날 열리는 개막식 축하공연에는 가수 장윤정과 김희재, 박서진, 은가은이 출연한다.나흘 동안 각종 체험 부스와 전시홍보관, 키즈존,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도 운영된다.김해축협 송태영 조합장은 “김해 한우 인지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이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해축협은 1957년 김해에서 최초로 설립된 농협으로 탄탄한 역사 기반을 자랑한다. 현재 김해시에서 사육되는 한우는 3만 5000마리로 경남 18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많다.